

교회 목표

신명란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간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 3:4)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문특별집간구약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Ŏ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유대 병 베타레멘아

나는 유대교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마 2:6)



2000 성탄전야 찬양의 밤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3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세속의 도시에서 성탄 전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리로 쏟아지는 수많은 인파(人波), 매혹스럽게 빛나는 네온 사인,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흥청거리듯 들리는 캐럴(carol),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오래 전에 예수를 도시로부터 추방시켜 버렸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땅에 공존하는 교회도 예회는 아닌 듯 싶은 일이다. 세속의 문화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도시의 많은 교회들 역시 그리스도를 교회당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그것은 예수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며, 비천함과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세속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을 대신하였고, 세속의 감사는 예수의 죽음을 대신하였다. 만일 주가 세속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면, 그는 처음부터 세상의 왕국에서 나셨으리라! 그러나 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처음부터 낮고 천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전국의 기쁨을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 노래(new praise)를 부르게 하셨다. 중현에서 천국일꾼으로 자라는 어린 영혼들이 중현의 성도들을 2천년 전의 베타레멘의 조용한 마구간에 초청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빛날을 비추시고, 주께서 누이신 거룩한 처사로 인도하시길 소망해 본다.

제6차 세례식, 오늘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세례에 있어서 회개의 요구와 사죄의 언약

'세례식은 우리에게 물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물과 피는 부정한 죄를 씻는다. 주님이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리 오심으로써 무죄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서 승천하신 후에 요한이 예언한 그 일을 하셨다. 그분은 성부께서 약속하신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회개의 요구와 사죄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례는 그 나라를 위한 준비의 징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징표가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그에게 속한 자를 세례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다'(마 28:19). -Edmund P. Clowney의 '교회' 중에서-

오늘 세례에 동참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세례에 관해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형식적인 물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교구총회

4주예배 후, 본당에서

성도는 영존하시는 한 분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가 흐르며, 따라서 그들은 결코 분리되지될 수 없다. 교구총회를 통하여 중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사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지시길 기도하자.

제명·출교

당회는 「새비시슬(신분)」을 통해 후원을 요청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교영 집사(교적번호 83-155)를 제명·출교 시켰다. 당회는 그 동안 개인적으로 근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교사총회

이번 주 목요일(28일) 오후 7시, 갈릴리움에서, 중현의 모든 교사들이 한 자리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행 5:42).

세상의 학문이 변화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변화되더라도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가르치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므로 결코 거두낼 수 없으며 성화(聖化)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현의 모든 교회학교 한자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간구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은 목요일에 실시하는 교사총회에 기도와 소망함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

복음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 이번 교역자 수련회를 이렇게 불리도 좋을 것이다. 수련회의 주제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역자가 되라"(갈 6:17)였는데 예수의 흔적은 결국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일관된 수련회였다. 모든 프로그램의 방향은 복음이었으며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주제에 점점 더 깊이 밀착되어 갔다. 온 몸을 잠그는 온전의 뜨거운 물 속에서도 복음은 따라다녔다. 사늘한 새벽 공기 속으로의 걸음에도 복음은 물러가지 않았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물리치게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처음 수련회를 출발하면서부터 복음은 물음이 되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내 속의 무엇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복음은 고인이 되었다. 내 속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차라리 포기라도 하고 항복을 하였지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 내리는 나 자아의 몸부림은 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알 것같은면서도 손에 잡히지는 않는 듯한 안타까움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마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영혼한 신알고대배를 한 배드로처럼, 만저처럼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고 당황해하던 도마처럼 내 안의 전쟁은 이미 패배하고 있었다. 담임 목사님의 특징은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는 배척 대상의 경향이 되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성경으로 복음의 일관된 흐름을 설명하셨다.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들면서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말씀하셨을 때 눈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깊은 영혼의 출렁임이 일고 있음을 느꼈 수 있었다. 복음의 실재를 안다는 기쁨은 그런 것이었다. 우리가 모인 그 장소, 그 시간은 영혼들이 열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각자에게 임하는 경연이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들려 주셨을 때 그분의 자유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의 능력 또한 거기로부터 시작되며 강력한 리더십의 자신감은 복음의 결과였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고 한 길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명이 거기에 있었다. 수많은 장래들과 꿈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했다. 중현과 함께 고인으로서 시작된 복음은 확신한 소명의 확인으로 돌아오게 해주었다. 이번 수련회를 기쁘게하고 진행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한다.

안창덕(목사, 13교구 지도)

연말행사 일정표가 8면에 있습니다

Last Chance For Your Soul

(Luke 19:41&42)

"He cried as His eyes viewed the city,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As He approached Jerusalem, sitting on a colt that no one else had ever sat on, Jesus wept. He cried as His eyes viewed the city,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vv. 41&42). This moment in Scripture is a beautiful portrait. After three years of ministry and thirty-three years of human life, from His start in Bethlehem, to His escape in Egypt because Herod wanted to kill Him, to His upbringing in Nazareth, to His raising of Lazarus from the dead, all of Jesus' life was filled with one purpose. He wanted to save this world. He taught the people and preached the gospel. He gave everything, yet, at this time He wept. Even though He was being recognized, praised, and honored by a crowd of His disciples, saying,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v. 38). Jesus cried. Although everything appeared triumphal, the cross approached Him closer and closer. His successful three year ministry gave Him the reputation and respect for the crowds to truthfully shout "Hosanna", but Jesus still wept.

Tears are a beautiful expression of heartfelt, not deceitful, human emotion. Very few people aren't moved by the cry of a human heart, like Stalin or Hitler. Most people are moved. For instance, when a small child is lost and crying for its mother, most people gather to help and feel sympathy. Hard workers, blue collar workers, who are rough and tough, wipe their eyes when they look at the cry of someone hurting. I've seen really cold young men cry out for their mothers at the cemetery. Over here, Jesus wept. If you look through His eyes, every heart will move. His eyes looked upon the Jerusalem temple, not the building itself, but the people inside it. They were trying to worship the Lord, to communicate with God.

Perhaps, Jesus is now looking at Choong Hyun, not the building, but looking at us, and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v. 42). For this, Jesus cried.

Jesus preached, healed, and sacrificed to give these people love. They had so many opportunities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They lost this opportunity by faith. They passed on their salvation time! Jesus gave them more than they needed. He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But the more He gave, the more they rejected Him and rebelled against God. The arms of salvation that reached out to them, the door to eternity shown to them, was not given heartfelt reception. They treated Jesus as a human, not as their Savior. Even though Jesus called them, their ears were deaf. Now Jesus is approaching Jerusalem, knowing that He soon must leave this place because He has to take the cross. He cried for the poor souls who didn't know the way of peace. He cried for the poor souls that didn't know the way of peace. He cried for the poor souls that didn't know the way of salvation because of their rejection of Him!

Right now, in this day and age, isn't the same thing happening? The Holy Spirit keeps telling us the truth. The Holy Spirit keeps pounding on the door of our hearts to open up. Even though we keep attending church every Sunday, after Sunday, after Sunday, just like the Israelites attended the Temple, many people continue to reject the truth. Every Sunday you hear the Gospel message, you hear God's voice, but you don't really pay attention to the Lord. Oh, the missed opportunities of salvation, eternal time. Even though every Sunday provides this blessing from heaven, people still neglect it and many miss their last chance for their souls to experience life. Here, in today's Bible verses,

Jesus saw the multitude of souls that would not see heaven. He wept as He looked at Jerusalem. These people were going to lose eternal life, forever, and ever.

If you haven't made the most important decision of your life, Satan doesn't care if you come to church; He doesn't pay attention about such matters. If you haven't made the decision, Satan never cares if you help other people. Today, Jesus visits men and women through the Holy Spirit. He uses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 Holy Spirit. If faith can come through hearing without a preacher, how do you hear the Gospel? "And my message and my preaching were not in persuasive words of wisdom, but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2 Cor. 2:4). Amen! The Gospel is God's evidence. Through Bible teachers, Christian fellowship, sonship, and stewardship, and Christian newsletters, where the Holy Spirit has power, people come to faith. Everything that is under the power of God's control contributes to one's faith. Sometimes people come to know the Lord at funerals, hospitals, and prisons. Sometimes people come to faith because of a business failure, or because they hear it from their children. But still, Jesus is ignored, even though He preached, healed, and was crucified and died for us. Sometimes we respect God, perhaps honor Him and praise Him for a moment, but still come back to our simple wa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r life is that you have to say yes to Jesus.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course, it's your privilege to say no. In today's Bible verses, you can see two destinies. There are two destinies because God's covenant is there. If you reject God, you lose eternal life. And that's not God's fault! Imagine an earthly father who raises his son in righteousness. The boy knows right from wrong, he has been trained to do

good. However, the son chooses to do something bad. He steals money. His father told him not to do it. His father even goes so far as to offer everything he has so that his son will not steal. The son is caught, prosecuted, and jailed under government law. That's not the father's fault. It's not God's fault if you turn away from His calling to you. Every person sitting here today has absolutely no excuse for not receiving Jesus as their Savior. He is Lord, whether you acknowledge Him or not. He is the truth, the way, and the light! No one comes to God except through Him.

Today is the last day of December, the last day of the year 2000. In today's Bible verse, it is the last day of Jesus' visitation to Jerusalem. In your life, what is the last day of your visitation? It is your death. Death is the finishing line for our life here on earth. Today may be your last opportunity to finish. My dear friend, please accept Jesus now. This i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for you. If you say no, there might not be another chance. You might not get another chance. Some people say that they're so busy right now, but that before they die they will accept Jesus and repent. Don't be proud of yourself. I will tell you that you are a fool! Don't ignore the sound of Jesus knocking on the door to your heart. Some people say that their Mom's pray for their souls everyday. They say these godly women go to church every morning and truly pray for them. They appreciate their Moms' efforts but they don't want to really to be serious about religion. They don't want to be religious men, they want to enjoy a normal life. They believe in heaven but don't want to get involved now; they'll take up the matter later. Don't be foolish. Please listen to the Holy Spirit. Please listen to Jesus. He's crying out. He prayed on the cross, "Father, Forgive these people". Please come, accept Jesus as your Savior. ㄸ



김성완 목사

마지막 기회 (눅 19:41, 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종을 뻗았겠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의 눈물

예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들
에 앉아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우셨습니다. 그의 성령된 눈에 예루살
렘 성이 비쳐자 우시면서 말하셨다. “너
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종을
뻗았겠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2절). 성경에 묘사된 이 순간은 아름다운
한 폭의 초상화였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역,
그리고 배틀렘에서 시작되어 해못의 관
날을 피해 부모의 품에 안겨 애곡으로 피신
했던 시절과 나사렛에서 지나나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33년 간의
모든 생애는 하나의 목적으로 채워져 있었
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
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셨
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
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 울고 계십니다. 비록 한 무리의 제자들
에 의해 “가르도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38절)라고 인정
받고 찬양받으며 영광 받으실지라도, 그는
우셨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순리한 것 같
으나, 예수께서는 절절히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의 성공적인
3년 동안의 사역이 공로로써 하여금 그를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며 명성과 존경을
돌리게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우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신 예수

눈물은 진성과 정직에서 우러날 때 흘러
게 되는 인간 감정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때론 귀소수의 사람들이, 크스탈린과 헤르만
같은 사람들은 눈물에 의해서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에 의해 그의
마음이 동요합니다. 한 예로 어린이가 잃은
엄마를 볼 때, 그녀를 위해 울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을 듣고자 하며, 그
녀와 동일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힘든
일에 종사하는 거칠고 강인한 노동자들은
그들이 다친 사람이 우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저서 죽은 어린이들의 어머니들을 위
해 절규하는 젊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
다. 예수께서도 우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의 눈을 돌리다면 본다면, 모든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물에 어
니 선전 건물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입
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
습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지금 총헌교회를
바라보고 계시실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종을 뻗았겠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
다”(42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신 이유입니다.

멸망당할 영혼 때문에 우신 예수

예수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으며,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
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 많은 기
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해 얻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들을 위한 구원의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주
신 것들보다 더 많이 예수를 거부하였고 주
난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밀어
진 구원의 팔, 그들에게 나타난 영광에 이
르는 문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
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만 여겼
고,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지, 그들의 귀는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제루살
렘에 가까이 이르렀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영혼을 위해 우셨습니다. 그는 자신
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가난한 영혼을 위해 우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우시는 예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기 위해 강하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사
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오듯, 우리 역시
매주일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
나 그처럼 멀쩡한 사람들은 진리를 계속해
서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실제로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구
원의 기쁨과 영생에 이르는 시간을 놓쳤습
니다. 비록 모든 주일 하느님로부터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인하
며, 많은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
다. 여기 오늘날의 본문에서 예수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셨습
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고 우
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을 잃게 될 것
이었습니다. 영원히 아주 영원히!

인생의 중대한 결정

만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한 중대
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진 말건 관여치 않을 것입니
다. 마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돌린
말건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멸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
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는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길 것입니다. 만일 전하
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들습니까? “내가 한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왔노니 이는 너
희로 근신하게 하라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2:4).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로
써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양자적이고 정치가 직분, 그리고 기
독교인들이 만든 회로를 통해서 등등, 성령
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믿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능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의 믿음과 복음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장래적인가 멸망치 않
고 감옥에서 주님을 믿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사랑의 실패나 그들의 자녀로부
터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
시고 죽으신 예수를 무시합니다. 비록 복음
은 전파되고, 보고를 받지만 말이지요.
아마도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
기도 하고 영화롭게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
지만, 여전히 인생의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
옵니다.

피할 수 없는 책임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수께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
는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 운명을 발견하
됩니다. 두 가지 운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의 언약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거절하
면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
나 아버지께 의해 죄를 갚아 준 어떤 이들을
상당히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들은 잘못으
로부터 올바른 행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 이들은 선을 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들은 악한 것을 선과 선택하였고,
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악한 것
을 하지 말고도 당부하셨고, 이들이 돈을
훔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들은 불감해, 기소되었고, 정부의 법
아래에 죄사상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
므로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와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을 향한 부르심으로부터 멀리 떠나간다면 그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
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 절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인정하지진 안
정하지 않든지,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진리요, 길이요, 빛이십니다. 그를 통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
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이며, 2천년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
경 본문을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몸
으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
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마지막 입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
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
나는 결산선입니다. 아마도 오늘이 여러분
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가질 수 있는 마
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
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면, 또다
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
람들은 지금은 매우 바쁘다는 이유를 삼기
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
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의
움직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는 매일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들은 말하길, 자신들의 경건한 어머니는 매
일 아침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가시며, 그
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
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의 애쓰심을 고
맷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에 대
해 진지하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평범한 인생을 즐기길 원하는 것입
니다. 그들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지
금 당장에 천국을 얻는 것은 소망하지 않습
니다. 그러한 이들은 천국은 나중의 문제라
고 말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십시오. 성령의 움직임을 무시하십시오.
예수의 움직임을 들으십시오. 그가 여러분
의 영혼으로 입성할 통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
버치여, 저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

수리남에서의 1년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단기평신도선교사 오경진·한정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샤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수리남사역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상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질로 기도로, 정성으로 그리고 때때로 보내주시는 메일을 통한 격려와 사랑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선교지라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은혜를 주셨고, 인디언들과 나는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또한 전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목적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이든, 교수든, 농부든, 목사든, 선교사든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 없는 상황에서 나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안의 한계(교만, 무지, 착지 못함)가 드러나고, 또 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열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 저러한 경험을 통하여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배우고, 공동체생활을 통하여 섬김과 긍휼을 배우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배우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오래 참음을 배웠습니다. 친척 이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일로는 저의 일생에 귀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수리남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또한 우리의 의무 이이 함께 동역할 일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경진 올림

2000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수리남을 향 한 발걸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뢰하던 일이 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섭리해주신 시간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청년부 회원들과 여러 성도님들, 가족과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1년이란 시간을 선교의 삶에 헌신하겠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막상 선교지에서 모고, 듣고, 배운 모든 경험들로 인해 지시적으로만, 머리끝만 헌신했던 나의 약함과 무속함을 깨닫게 되고, 실제적인 일상의 삶에서 맞닥뜨렸을 때 드러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보석같은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마더와 베니사론의 아이들이 그 초그만 일출을 오모려며 심계명을 완고와 서로서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눈에 띄게 잘 외웠던 아이 가 있었는데 "제르밀라" 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남동생 "콘스웰로"와 같이 열심히 하우고 연습했는지 둘 다 거의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발음으로 심계명을 외워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 "제르밀라"는 1년 동안 제게서 미리를 배웠던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도무지 박자감각도 없고, 음표도 이해 못하고 그냥 손 모양만 보여 따라하다가 아무래도 다 른 아이들보다 뒤처지고 자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늘게라도 꼭 찾아 나와 자리를 지켜줬던 제르밀라, 지금은 함께 배우기 시작했던 8명 중에 오직 제르밀라 한 명만 프



리 스마스

노래를 거의 완벽하

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에 연주 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보 여준 성실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함께 배우고 그 안에서 나는 귀중한 시간들은 제게 너무도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마더와 베니사론 그리고 산티고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희는 떠나지만 다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수리남을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영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다.

한정은 올림

지금 이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것

임 통 개 (집사, 1교구)



1교구가 놓여 온 전도를 떠 나던 11월 30일, 아침 7시 출발에 정 비스를 타

터 주부들의 손발

은 어느 집이든 바쳐서 들렸으리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라 마음만큼 쉽지 만은 않았다.

충주 기금면에 가금교회가 사역하는 지역은 80%가 불교신자이며 중앙탑까지 있어 여러 불교 행사들이 개최되는 지역이다. 작년엔 전도하고 왔었는데 그 결과

최석주 목사님과 교인들의 기도와 사후관리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드럽고 친절히 대하며 마음들이 차츰 녹여지고 있으며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2인1조로 축조전도를 나갔고 이·미용팀은 교회소속 어린이집 유아들과 이미 도착한 할미나들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새벽부터 움직였다. 머리결과 헤어 따라 조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어 신경을 쓰는 이·미용팀은 식사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열중이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맡긴 상태이기에 복음을 전하기엔 더 좋은 기회였다. 84세의 할머니는 얹혀 오셔서 거동을 못하시니 짧은 컷트를 헤드 리면서, 흑시라도 언저 붙여가실지 모르니 지금 이 모

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정성껏 다듬게 되었다. 그분에게 누워서라도 기도하시길 권하면서 이같은 봉사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함을 다시 느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도도의 활동을 통해 서로 간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뱃 때문에 자살하러던 사람을 만나 예수를 증거하여 다시 삶을 돌아보게 된 분, 반대하는 분의 허리띠를 잡고 마구간까지 따라가서 결국 교회에 나오겠다 말씀하신 할미버지, 다 성경한 자식을 잃고 술과 고치로 세월을 보내며 술먹어 생긴 반점을 보여주는 분에 전도하신 집사님이 본인의 병환의 치유하심을 전하자 '나도 교회 나가면 고치치나요?'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인간의 낙담함을 느껴본다.

생활에 바빠 교회에 못나갔지만 항상 나가고는 싶다고 하신 분, 사람이 그리웠던지 부드럽게 대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주님의 자녀 된 인생의 가치를 함께 누리길 원하며,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캄캄한 밤 시간은 우리의 도락을 은은하게 맞아 주었다.

푸른 이야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김영훈 (목사, 고동부 지도)

우리 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오는 곳은 배화절일 것입니다. 교회들이 아직 성탄 장식을 꾸미기 훨씬 전부터 이미 배화절들은 아름다운 장식과 트리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듯 배화절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장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단지 상복을 파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믿는 기독교인만은 싸구려 상업주의의 포로가 되지 말고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없는 어두움과 미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예수님이시지 어떤 상품이나 선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화려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일이 구름 없는 맑은 마구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탄생이 배화절의 화려함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탄생은 실재가 아니라 생각할 때에 온전한 한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매우 진지한 날이기도 합니다. 믿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실재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잘못과 잘못의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배화절에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김인식 (목사, 청년2부 지도)

성탄의 딸처럼 애이 넘쳐나고 있으나 또 다른 거리에서는 여전히 추위에 고른 배를 움켜쥐고 쓸쓸함으로 이 계절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평강의 주님, 구원의 주님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사한 심령들을 찾아 고칠 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실 분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 61:1) 가브리엘 천사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낸을 받은 천사입니다.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은 온 세상에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잉여느야(여아)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놀라운 표적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비난을 모면하려고 이런 '남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도 우리와 똑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기 위해 초월하셨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만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이 추운 겨울 사면에 누운 곳이 없어야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모셔드릴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온갖 격정과 열려놓기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이 성탄에 오실 주님이 다시 쓸쓸히 추운 거리와 마구간으로 가시지는 않는지요?

“빈 방 있습니까?”

이종태 (강도사, 청년1부 부지도)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가까워올수록 생각나는 연극이 있다. 바로 '빈 방 있습니까?'라는 연극이다. 한 밤중에 여권을 찾는 한 가족의 안타까움으로 연극은 시작된다. 아무리 찾아도 빈 방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어느 여관에서 빈 방을 발견하고, 주인과의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으면서 전개된다. 결국 이 연극은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느냐는 강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가시인 예수님을 누릴 곳이 없었다. 모두들 말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빈방 한 칸을 내어드릴 여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사정은 그리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어두운 밤에 여권 문을 두드리며 빈 방을 찾는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조차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지보다는 주인공은 뒤로하고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며, 이 성탄절에도 '빈 방 있습니까?'라고 그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치시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의 복음

김윤식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러 차례 맹세를 하였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문화와 접하는 사이에 이방의 신들을 숭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였으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등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였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도 똑 같은 잘못을 범하였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남신과 여신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그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로마교는 많은 이교적인 축일들로 얼룩져 있으며, 개혁신 기독교에도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부활절)속에 이교의 요소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는 과거에도 그레해 왔듯이 이방문화의 보이지 않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지도 모르는데 사이에 복음을 이방문화로 대체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이방문화로 인해 변질되거나 흐려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 복음은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만평

글·그림 장민 / (minj74@jaangminn.com)



*예수님의 자녀 '탄가' 대치하고 '빈 방' 있습니까?

성탄절에 들려주는 “붉은 여우 이야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마구간에 여러 동물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각각 한 가지씩 예물을 드렸지요. 말은 자신의 구유를 드렸고, 정소는 따뜻한 우유를 드렸으며, 양은 아주 부드러운 털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동물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데 한 꼭 쥐에 붉은 여우가 물고리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우에 대한 충직 않은 감정을 가졌던 동물들은 붉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여우야, 너는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니?”

“예물을 드리는 법!”

그러자 여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나는 나의 고향집을 드렸어요!”

여우의 이 한마디에 모든 짐승들은 일제히 비탄했습니다.

“너는 항상 그럴거라!”

“나는 어떻게 슬펐한 아기 예수님께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니?”

“네는 역시 모자가 있어!”

붉은 여우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들의 계속되는 비난을 듣고 있던 아기 예수님께서 초혼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애들아,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겠니? 나는 여우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바쳤다고 생각해!”

아기 예수님의 이 말에 짐승들은 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럼 우린 뭐라고?”

아기 예수님은 조금 전보다 더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야 너의 구유는 내가 자라면 다시 네 것이 될 것이고, 소여 너의 젖은 또 다시 생길 것이며, 양아 너의 털은 다시 자라게 될 거야! 그렇지만 여우에게 고향집은 생명이란 다. 여우는 그 지혜로 사냥개를 부리고,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사냥해 온단다. 그러니까 여우는 자기의 생명을 준 것이란다.”

아기 예수님이 이 말에 짐승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붉은 여우는 본 짐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증과 나눔 (교구 이야기)

구역탐방



십자가 군사의 성품

목사님 사모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며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기자의 가정을 먼저 언급해야겠다. 기자의 아버지는 목회자셨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목회자 가족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목사님 사모도 편견을 주면 상처받고 욕을 하던 기분 나쁜 인간이다. 그런데 다르게 보인다. 항상 고정된 편안함으로 성도의 눈에 비쳐진다. 이번 주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편안함의 대가속으로...

역시 사모님들이라 그런지 말씀과 대화의 초점이 회생에 맞춰져 있었다. 주제가 '십자가 군사의 성품'인 이유도 있었지만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모님들의 평소 화생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구역원들은 서로 강해져야 한다고 권고해 주었다. 강해지자 세상 속에서 강해져서는 안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이유는 고난 받을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난 받지 않은 군사만啊. 우리는 모두 주의 군사. 고난은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충속에 얽매이지 말고 고난을 태연히 받아들이자고 했다. 한 구역원은 개인의 충속에 얽매는 것은 군에서 말하면 탈영이나 마찬가지로 말했다. 군사는 군에만 소속된다. 우리 십자가 군사이다. 그러니 세상의 돈나리 명예

따위에 얽매는 것은 탈영행위라는 뜻이다.

세상의 군수도 절대 복종을 외친다. 세상의 군사는 지휘관이 틀릴 수도 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절대 복종을 외치는데 하물며 들리지도 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두고 있는 십자가 군사는 당연히 절대 복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의 군사는 승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십자가 군사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으니가 그런 그냥 복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무리를 하며 김경신 사모님의 신앙고백이 있었다. 강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자신이 십자가 군사가 됐다는 것은 정말 수치 맞는 일이라는 것이다. 목사님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한다. 우리가 뭐 자격이 없느냐고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것 뿐이라고... 자격도 없는 자가 군사가 됐으니 군사 훈련이라도 확실하게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인도자가 정리하는 말에서 주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사랑이 무기라고... 사모님들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편안함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제의 시간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사모님들의 부락으로 김경성 사모님의 '자녀기르기 특강'이 있었다. 성도님들께도 도움이 될까 싶어 남겼다. 어릴 때는 틈나면 성경을 읽어준다. 그럼 성경을 보고 읽어야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글씨도 빨리 배우게 된다. 주일엔 시험기간이라도 공부를 못하게 한다. 그럼 자녀도 시험기 주일을 좋아하게 되고 평일

사택 A구역
구역장: 전선영 사모
인도자: 김명선 사모

+ 양오실

당신을 위하여
한 날을 택하소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이들을
버리지 마소서
생명찾기를 시작하여 아소서
뜨겁게 뭍부릴지는 한 날을 위하여
당신이 부활하소서

6교구 고제승 집사 '간증'으로 현대 중앙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 되기를 원합니다. 1개월 가량 치료예정입니다.
7교구 정병용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골수가 맞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에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원경희 성도** 난소암으로 12월 20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 병원 51병동 9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조승민 성도** 폐에 물이 차서 민중 병원 351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에 주십시오.
뜨겁게 뭍부릴지는 한 날을 위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

다시 만난 예수님

대 성 (15교구)



저는 이복이 고향이지요. 고향땅에 교회가 들어오자마자 예수를 믿었지요. 그 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지요. 그렇게 그냥 교회한 것이 맞는지 알게 되고 12살 때 경성 땅,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로 내려왔지요. 제가 공부를 잘 해서 경성서 학교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재중학교 교를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1등도 하고 성적이 좋았는데 교회에 갔다나다가 라디오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 참 신기한 것이라 생각하고 라디오 만드는데 여념이 없더니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넌 배재중학교 다닐 필요 없다."라면서 전기학교로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공고지요. 그러니 전기학교에서도 라디오를 가르치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수순문에서 라디오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내고 낮에는 전기학교 밤에는 라디오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 래도 교회는 갔지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찬양대도 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참 껍박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더 오기가 나서는 작은 모임에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큰 형님도 예수쟁이였는데 한정적 목사와는 친구 사이였지요. 당시 큰 형님은 신사참배를 한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의 껍박이 심해져서 저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었지요.

해방이 되자 저는 기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일본 중산당 놈들이 교회당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참으로 한탄스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남에 가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신앙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쪽엔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거지요. 그러니 교회도 정착을 할 수가 없어서 여지거기 다니다 보니 신앙이 약화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는 데 급급했지요. 가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던 일제시대와 공산 치하를 떠올릴때만 오로지 아무도 막지 않는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일 집에 사는 구권사님이 예수 얘기를 한 겁니다. 반가웠습니다. 옛 생각도 나고... 큰 형님 생각도 납니다. 살았는 지 죽었는지도 모르지요... 비록 다 늙어서이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구역에배도 다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탄생하심은"

이 현 숙 (원사, 6교구)

주의 탄생하심은
아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짐이요

주의 탄생하심은
조종과 탐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함임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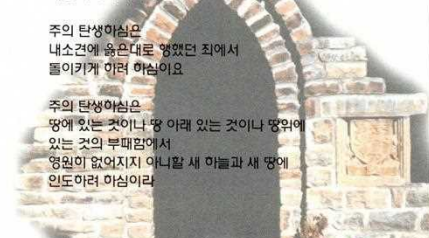
주의 탄생하심은
질병과 극한 기근과 생활의 염려에서
놓아주려 하심임이요

주의 탄생하심은
우리의 사상과 정경으로 채워져 있는 그속에
들어 오시려 하심임이요

주의 탄생하심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완전해질 수 없고
나의 존재가 없어져야만 하기에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함임이요

주의 탄생하심은
내소견에 육온대로 영접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 하심임이요

주의 탄생하심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아래
있는 것의 부패함에서
영원이 없었지 아니할 새 아들과 새 땅에
인도하려 하심임이요



전국 학교

예수님의 탄생

김용섭 (연사, 장년부 교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산고야 여기 있다
일정한 집 없애라 눕힐자리 없어라
마구간 짚을 깔고 등지트는
타조 끝 울음소리 태어난 영혼 하나

세상은 망각 눈치며 머나부나
총총벌 숨죽이고 아가들처럼 내려앉고
천사의 기쁜소리
평화를 노래하다

하얗게 부서지는 강강한 밤
익간의 몸 입고 오시 아기
구유 속 자그마한 공간
고난과 슬픔을 배운다

심아될 지 아랴 바람
아득한 하늘 무려져
묵상하는 마리아
오늘도 꿈 속에서
나는 아기 예수 큰 우주를 덮고 있다

“이상한 일이지요”

이유겸 (중등3부)

이상한 일이지요
분명이 왔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오천 명의 양식으로 변하는 듯한 그런 광경을
감격하여 보았는데...

이상한 일이지요
감격의 여운이 남아있어야 할 시간에
풍랑이 이는 바닷가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두려워 떠는 나의 모습은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도 답답하게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 앞 물결치고 동소리를 뱉으며 걸어갔는데...

이상한 일이지요
경기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놀라서
건어물 낚시꾼이
인심 속에 빠지버린 나의 모습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지요
두번이 지나가 버린 천 년 전의 일
무거운 시계추는 고개를 흔들지만
풍랑 속에 잠겨있는 나의 모습에
조용히 내미는 예수님의 손길

세상은 이상한 일도성이지요
자기위신 나의 손길이지만
스피린 못 사람이 밝혀버린 그 손길에
떠내려지는 나의 작은 손
멀게만 느껴지던 피름은 십자가의 그 손길에
조용히 나의 마음 속에 맺힐 수 있다는 것은

“아빠! 기도하고 약 드세요”

강태영 (중등3부 교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말하신 아이들이 성장하
여 이제는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
었다. 하지만 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파하던 때를 기억
하여 본다.

이들이 너무 어려 아무 말도 못할 때, 물로 된 약을
조그만한 수저에 담아서 그들의 입에 넣기 전에 “하나
님, 약게 해주세요.”라고 정성스레 기도하던 아내의 모
습을 기억하여 본다. 조금 성장하여 ‘용안이’를 알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기도후에 용안거리고 난 후에야
약을 먹었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여 본다.

좀더 성장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 열마의 기도후에
‘아빠! 하아! 약을 먹이던 모습을 기억하여 본다. 더
성장하여 어느 정도 말할 때, 엄마의 기도를 더듬거
리며 따라할 후에야 약을 먹었던 모습을 기억하여 본다.
이제는 성장하여, 혼자서 기도한 후에 약을 먹는 모습
을 옆에서 지켜본다. 인젠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다.
옆에 있던 큰아이가 “아빠! 기도하고 약 드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목사
님, 전도사님, 교사의 형상으로 때를 부모님, 아내, 자
녀, 친구, 이웃으로 또는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
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길로 인도하심에 결코
취약치 않으시다. 지금 이 순간도 옆에서 우리를 인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자.

말씀의 자녀들이 교회, 가정, 학교 등의 삶의 현장에
서 주님을 잘 믿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성장하
길 기도한다.

각자의 직분대로

인듯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올해는 한 동네에 살고 계신 외삼촌택에서 우리 집 감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종종 집에서 어머니가 감장을 하시며 옆에서 거드는 정도였지만, 이
번에는 좀 달랐다. 전날 소금에 절여둔 배추들을 찬물에 흔들어거머 씻는 것부터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씻고 버무리는 모든 과정에 동참하게
되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의 기세 당당함도 잠시, 허리를 시작으로 온몸 이곳 저
곳이 쭈서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녁 이슬처럼 무렵 감장하는데 사용된 모든
그릇들을 씻고, 마당에 묻은 장독대에 배추를 차곡차곡 넣는 일까지 마땅게 먹을
감장을 먹고자 이를 아물고 끝까지 버텼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일이 어느새 나
마무리되고 조그마한 배춧잎을 골라 갖은 양념이 된 김치 속을 써서 먹을 때는
정말 끝맛 같았다. 김치와 밥 한 공기쯤 딱딱 해치우고 쉬면서 문득 이런 생각
을 했다.

‘어떻게 감장 담그는 것이 발명되었을까? ‘무세, 미나리, 갓, 깻잎, 새우
젓, 굴, 파,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수많은 재료들이 그것도 알맞은 비율에
따라추어서 잘 섞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해야 볼품 없는 하나하나들이 김치라는 모
습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쯤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
치가 되기 전에는 속에 들어간 재료들의 각각 고유한 역할이 다르지만, 간이 잘
맞게 버무리진 양념을 배춧잎 속속들이 골고루 채워 잘 익히면 간이 잘 배어 들
어 맛있는 김치가 된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 각자가 생긴 모습, 성격, 달란트, 직분은 모두 다르지만 이
는 부분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일들만을 강요한다면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하고 말로만 사명을 완
수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며 하나로 융합될
때 감동과 안에서 잘 익은 맛있는 김치처럼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칭찬
받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될 것이다.

(오지현 기자)

사랑하는 딸 한나에게

주님 기쁘신 생일날로부터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로 써달라고 했
을 때, 하루 앞에서 딸자신을 돌아보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조금은 부끄스
러운 마음으로 지난 14년을 돌아보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엄마에게
말기신 시간들이니까.

먼저 너를 이 엄마의 딸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
에 성장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나야! 그분에게도 권리만 주장했던 부끄러
고 책임자가 할 의무를 생각하지 못하고, 온게라는 명목하에 권리만 주장했던 부끄러
운 모습을 나에게 고백할 수 밖에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 명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권을 넘놓은 것은 아닌
지 모르겠다.

한나야! 너와의 대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며 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엄마! 엄마의 딸(직분)의 자녀! 노릇하기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주의해서 보니까요.” 그
래, 사실이란다. 나뿐만 아닌 모든 직분자의 자녀들이 겪는 공통 이야기다. 한나야! 한나야!

지금까지도 어떻게 할 참으면서 지냈지만 엄마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 싶구나. 직분자의 자녀로 지내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는 것은 더 힘
들다. 왜냐하면 직분자의 자녀로서 지낼 때는 내가 아닌 시름 앞에서 행동을 제약을 받
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행동)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살(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할 때 목상하는 성경구절이란다. 이 말씀을 너
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바위이고,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 나의 반역이
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도다.” (시
편 18:1-2)

하나를 사랑하는 엄마 박명옥 집사

교회소식 / 새가족

알림

1. 방송실 한글 자료 제공 봉사자
(전양배)배구팀
송원교회 방송실에서 성서의 봉사할 한글자료제공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중원교회 세례교인
문의: 552-8200(교문-23), 562-4872
2. 2001년도 교정전도회 춘천 신촌 총회교 교시모집
봉사기간: 2001년 1월4일(월)~1월12일(금)
교사지적: 주님께 헌신된 정인남·니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실 분.
3. 춘천북지교 필드교실 안내
내용: 필드교실 초급반
일시: 1월5일부터
장소: 매주 수요일 9:30~11:30
주강료: 3만원(월1만원)
문의: 564-4885(대선반)

모임

1. 정로 원모세배기도회
일시: 25일(화) 세백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세백기도회
일시: 26일(화) 세백기도회 후
장소: 배다나홀
3. 남나전도부 총회속회
일시: 31일(토)송주일 15:00
장소: 강민빌
대상: 교구 및 전도회 연합회장
4. 권사 전세교회
일시: 27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장소: 강민빌

남나전도회

1. 한나 13교회 총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414호
2. 한나 14교회 총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만나홀

발세

1. 정갑순 티고집사
(홍원정 집사의 모친, 15교구 봉천구역) / 15일 밤세, 18일 장례

연말 행사 일정표

12/24(주일)	12/28(목)	12/31(주일)
1. 교구총회 시간: 4부 예배 후 장소: 본당 2. 교회학교 찬양의 밤 (교육1부, 사방부, 예비다부) 시간: 찬양예배 후 장소: 본당 3. 세례식 시간: 찬양예배 시 장소: 본당	1. 교사총회 시간: 오후 7시 장소: 강민빌	1. 원로·은퇴·장기·군속자 포상 시간: 찬양예배 시 장소: 본당 2. 특별공로회의 시간: 찬양예배 후 장소: 본당

제직 앨범 사진촬영

- ① 촬영 대상: 45주년 제직 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 1999년 12월에 임명받은 2000년도 남·여 서리집사(백인본도 다시 오시오) 2000년 12월에 임명받은 2001년도 남·여 서리집사
- ② 촬영 기간: 2001년 1월 21일(주일)까지 주일만 촬영
- ③ 촬영 시간: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방문하여 촬영할 것
- ④ 촬영 장소: 신교관 408호 홍보실
- ⑤ 주의 사항: 촬영날짜를 잊을 것(날짜를 남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45주년 제직앨범(정제앨범)에 나와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받지 않음.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083	차영숙	2	-	김현자(10)	1089	강용호	12	고등부	곽상조(7)	1095	강호림	19	대학부	정규호(1)
1084	박인학	6	베드로		1090	강윤호	12	중등부	곽상조(7)	1096	장철남	19	청년1부	
1085	김남순	6	루디아		1091	심운산	14	청년2부	서옥선(5)	1097	최정숙	19	청년1부	
1086	김옥순	8	루디아	박영순(8)	1092	송은일	19	사방부		1098	이신민	19	예배다부	
1087	신현숙	11	에스더		1093	김낙자	19	청년2부	최봉순(7)	1099	지은숙	3	루디아	
1088	박재심	12	루디아	곽상조(7)	1094	안희자	4	루디아	개선화(1)	1100	이재규	6	청년1부	

※ 춘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전은순' 성도를 소개합니다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등부에 다니며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역사적 실존인물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새가족부 교재 1과부터 참회해 배워 예수님을 잘 알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박봉순' 성도를 소개합니다



유아시절에 교회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고 올 1월초에 심효숙 권사의 전도로 구역모임에서 먼저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가 6월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새가족부 집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도 갖게 되었습니다. 구역식구들과 권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 | | | |
|--------------|-------------|--------------|-------------|
| 김의철
신교목회 | 조진근
가평교회 | 김은호
교구위원장 | 노광현
동대교회 |
| 오진국
태백교회 | 이병학
제교목회 | 윤인현
신교목회 | 최태원
제교목회 |
| 열병철
제교목회 | 강종호
사방교회 | 오정현
배재교회 | 이훈
전양배교회 |
| 남진우
신교목회 | 사동석
영남교회 | 정운식
제교목회 | |
| 문용구
초등부 | 조인재
이연교회 | 김종구
유아부 | 최무길
청년1부 |
| 김천재
영남교회 | 이창호
제교목회 | 차진득
장사교회 | 김재명
행복교회 |
| 박영식
전도위원회 | 김광남
제교목회 | 이종석
제교목회 | 윤성철
가목교회 |
| 이하영
제17교구 | 최명환
제교목회 | 김인관
제교목회 | 이병욱
제교목회 |
| 안종욱
제교회 | 최명환
제교회 | 임무천
제교회 | 이종선
제교회 |
| 최기홍
제1교구 | 이강재
제교목회 | 전종홍
제교목회 | 전종현
제교목회 |
| 이정우
영남교회 | 김관용
제교회 | 황영일
제교회 | 신은기
제교회 |
| 한승규
중등부 | 김정수
신교목회 | 정홍식
신교목회 | 김환기
신교목회 |
| 원용철
중등부 | 이명수
신교목회 | 안동현
신교목회 | 황희만
대학부 |
| 김구형
유아부 | 최유미
이계인 | 이계인 | 박덕양 |
| 이태식
최성현 | 정태두 | 박홍규 | 권명욱 |

- 부목사
 - 이종선 이종대 이순수 정현민 김동하
 -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 이종경 박인기 여영기 류병희 노경록
 - 임태훈 이종철 김희선 여영근 김교성
 - 송길환 이수근 이현진 안창득 방준영
- 교육목사 장준희 이훈
- 협동목사 박영욱
- 전도사
 - 김준호 안석원 정은희
 - 이희도 수연 신민
 - 허용구 권영일 주진희
 - 리다나 수진 스기리
- 협력선교사 하효성(이희도) 장기영(수연)
- 전안감독 강인규
- 감도사 김영기 이종대
- 어전도사
 - 정현희 임태주 김장자 배옥인 최지혜
 - 송창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을 한영준
 - 김진석 홍순애 이옥주 김광자 안태순
 - 최효신 백명자 김정현
- 교정전도사 박덕양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8: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아나바다예배)	
V	오전 1:00(아나바다예배)	본당
VI	오전 3:00	본당
영양아나바다예배		
English Service	9:00 a.m.	강원교회(Ordin)
한 영 배	오전 5:00	본당
수 오 배	12:00 11:00 8:00 7:00	본당
목 로 집 회	오전 7:00	본당
새가족기도회	오전 3:00	본당

